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내달 출범 준비 본격화

## 당선인 91명 오늘 영암서 첫 전체 간담회 개최 안전 협의체 구성...임시회 장소 등 현안 논의

전남광주통합시의회의 출범을 앞두고 시의원 당선인 91명이 9일 영암에서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통합의회 출범 준비에 나선다.

간담회에는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대 통합특별시의의원 91명을 비롯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사무처·광주시·전남도·광주전남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초대 통합특별시의회의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주요 현안과 행정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첫 공식 논의 자리로, 상견례와 함께 통합의회 운영에 필요

한 의회 자치법규, 주요 현안, 행정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당선인들은 통합의회 출범에 필요한 핵심 안전의 조정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의의원 안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구성일부터 주요 안전이 결정될 때까지 활동한다. 협의 대상은 최초 임시회 개최 장소,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방법 등이다.

협의체는 안전을 이달 18일까지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한 추가 안건도 다룬다.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해 정한다. 위원은 당선인 10명 이내와 전남도의회·광주시의회의 사무처장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안전법 제정과 검토사항, 대안을 정리한 뒤 이달 24일 예정된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논의될 것은 첫 임시회 개최 장소로 전망된다.

통합특별시가 법적 공백 없이 오전 9시 정상 출범하려면, 의회가 당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만에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필수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중 어느 곳을 첫 임시회 장소로 이용할지가 하루 빨리 확정돼 전자투표 시스템과 방송·음향

설비, 의사진행 준비 등을 마칠 수 있는 셈이다.

통합특별시의회 본청사나 본회의장 위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닌 출범 초기 운영을 위한 한시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당선인들 사이의 양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간담회에서는 초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단 선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 의원 간 안배, 다선 의원 중심 선출 여부, 정당별 배분 방식 등이 변수로 꼽힌다.

초대 의장단은 통합의회 조직 정비와 상임위원회 구성, 집행부 견제 체계 구축 등을 주도하게 돼 상징성과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다.

상임위원회 구성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6개 위원회, 전남도의회는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도의회에서는 전문성 유지를 위해 14개 상임위 체제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7~8명을 12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배치하고, 운영위원회와 예결위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상임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각각 분산 배치될 전망이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광주시의회는 의원 4명 이상을, 전남도의회는 6명 이상을 교섭단체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통합특별시의회 정수가 91명으로 늘어난 만큼 어느 수준에서 교섭단체를 인정할지에 따라 진보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등 소수 정당의 활동 폭이 달라질 수 있다.

통합 자치법규 정비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의원 발의 조례안 56건, 시장 제출 조례안 480건, 교육감 제출 97건 등 633건에 달하며,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조례 가운데 폐지 대상 조례를 통합 출범 필수 조례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책 연속성이나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조례가 사전 검증 없이 정리될 경우 제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회 관계자는 “통합특별시의회가 자립 없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오는 9일 간담회는 향후 통합의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간담 기자간담회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간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 시장·군수 당선인들, 인수위 구성 위원장 등 인선 후 활동 착수...민선 9기 채비

6·3 지방선거 전남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이 잇따라 인수위원회를 꾸리면서 민선 9기 구상에 착수했다.

8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0곳에서는 현역 시장·군수가 연임에 성공하고, 나머지 12곳은 교체됐다.

강성희 목포시장·서영학 여수시장·손훈호 순천시시장·박성현 광양시장·박종원 담양군수·장길선 구례군수·김지라하순군수·사순문장흥군수·김신안도군수·이재각진도군수·이남오함평군수·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인이 새 얼굴이다.

당선인들은 선거 캠프 해산식에 이어 곧바로 시장·군수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공약을 다듬을 방침이다.

인수위의 간편이 될 위원장 인선을 위해 정치, 경제, 지방자치 등 전문가들과 접촉도 활발히 하고 있다.

손훈호 순천시시장 당선인은 이날 순천시청에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손 당선인은 이에 앞서 박기영 순천대 명예교수를 인수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만간 인수위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종원 담양군수 당선인은 차상준

전 담양군 기획실장을 위원장, 장규호 전 대한민국 대전환 전남 총괄조직특보를 부위원장으로 인선했다.

인수위는 약 10여일간 활동 기간 부서별 현안을 파악하고,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을 정교화해 국정 운영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임 군수의 직위 상시형으로 지난 해 3월 27일 이후 1년 이상 공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비상 대책이라고 김 당선인은 전했다.

김 당선인은 농어촌 르네상스 구현, 육상·해상 교통혁신, 의료·복지 향상, 미래신성장 동력인 체류형 관광 사업 육성, 신재생 에너지 산업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은 지역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기업 CEO 출신 인사를 위원장으로 섭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중 속속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인수위는 광역단체 20명, 기초단체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활동 기간은 단체장 임기 시작 후 20일까지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 여 “전대 8월 17일 개최...권역별 순회경선”

### “지방선거 평가위 ‘내외부 인사’ 균형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 부처 개정을 통해서 기간을 다소 여유 있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9일 최고위 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일 당무회, 다음 주 중앙위원회를 통해 전대와 관련한 제도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즉 다음 주까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경선 일정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계획을 모두 세울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린 후 당 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한 후보 등록을 받을 것”이라며 “당 대표는 4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거쳐 본 경선을 하고, 권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정청래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 사퇴 시한은 당헌·당규상 정해져 있지만 전준위가 꾸러지면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번 이재명 대표는

전대 준비위원회 구성 전에 사퇴했다는 전례만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당 대표 후보자,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당 대표는 4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하게 된다”며 “권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오는 8월 17일에 최종적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스케줄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는 게 오는 최고위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공감대”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위원회 설치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조 사무총장은 “평가위는 내·외부 인사가 균형되게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동으로 한다”며 “구체적 인선은 수요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 기구를 통해 선거에 대한 제

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 엄중한 현실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당 기초, 전략, 방향을 세우는 데 큰 참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가 다 끝났는데 여전히 당 경선 과정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당 지도부를 자주 흔들어대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며 “정치적 소신과 판단에 따라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어도 가공의 팩트를 들어대면서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경선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경선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지도부와 대표에게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경선 과정에 발생했던 ARS 응답 누락은 기술·실무적인 문제로 파악됐고, 즉시 보완했다”고 반박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당대표 출마, 호남 민심 보고 결정”

### 송영길, 지방선거 결과 놓고 정청래 지도부 작심 비판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사진)이 최근 광주를 찾아 당대표 선거 출마와 관련해 “호남 민심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지자들과 광주 북구 운동곡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송 의원은 현화·분향한 뒤 무명열사 묘역과 양창근 열사와 고교 동창인 전영진 열사 묘역 등을 찾아 묵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송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

심의 심판을 받았다”며 “승리하기도 하고 진 부분도 있는데, 정확히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단 정청래 대표가 전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하는지 지켜보겠다”며 “호남 민심이 사명을 부여할지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장 당내 경선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정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다시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당

경선은 깜깜이었으며 여론조사 기관을 믿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광주 경선에서 2300개의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없애버렸다”며 “후보들은 질문 항목과 순서가 어떻게 구성됐고 처리 됐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영록 전남지사가 선거가 끝난 직후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은 억울함을 참고 있다”며 “정 대표가 다시 출마하면 한병도 직무대행 체제로 갈 텐데 사무총장, 조직국장 등은 모두 그만두게 하고 중립적인 지도부를 구성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당내 경선에 도입된 1인 1표제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1인 1표제 가지고 많은 당원들이 당원 주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10만명의 당원이 있는 도시에서 200개의 샘플로 당 후보를 뽑는 상황이었다”며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을 외면하고 수도권만 강하게 하는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의 경우는 경선이 곧 본선인데 허술하게 관리했고 내부에서 결정해 지역민의 선택권을 빼앗은 것”이라며 “호남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무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을 했음에도 의사결정에는 참석하지 않아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정청래, 12일 광주서 현장최고위 예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가운데 오는 12일부터 공개 행보를 본격화한다.

8일 정가에 따르면 오는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후 5·18 민주묘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5일 의원총회·본회의, 6일 제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등을 제외하고 별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오는 11일 경남 김

해시 진영읍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대표 연임 도전이 거론되는 정 대표는 전당대회 일정 확정 흐름에 맞춰 관례상 당 대표직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진행하는 등 소속 의원들과 접촉면도 넓히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 디지털관광주민주증 지역 확대 44곳→52곳...1400곳 혜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관광주민주증’의 서비스 지역을 기존 44개에서 52개 기초지방정부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새롭게 참여하는 지역은 충북 보은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고흥군·담양군·완도군, 경북 울진군, 경남 산청군·함양군 등 8곳이다.

이로써 디지털관광주민주증 운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58.4% 수준으로 늘어났다.

또한 디지털관광주민주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소도 기존 1100여곳에서 1400여곳으로 확대됐다.

연합뉴스